북한이탈 여성의 월경규칙성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김현경¹ · 김희숙² · 김석주³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¹,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²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³

= Abstract =

Difference of Traumatic Experience according to Menstrual Regularity among North Korean Woman Refugees in South Korea

Hyun Kyoung Kim¹ · Hee Sook Kim² · Seog Ju Kim³

Departmen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¹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²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³*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raumatic experience according to menstrual regularity among North Korean woman refugees in South Korea.

Methods: This study used a sample of convenience consisting of 131 women in 5 government resettlement centers throughout South Korea. The traumatic experiences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was used for identifying traumatic experienc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ne 2012 and December 2012. Data was analyzed using mean, percentage, and t-test.

Results: The rate of irregular menstruation was 35.1%. Irregular menstruation group had more traumatic experiences than regular one ($t=-1.78$, $p=.038$).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ir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was necessary regarding menstrual problem. Also, their severe traumatic experiences were considered into health-care program.

Key Words: women, menstruation, north Korea, refugees, trauma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4).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기록을 살펴보면, 1993년 이전까지 연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교신저자: 김희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길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전화번호: 031-249-6657, 팩스번호: 031-249-6480
E-mail: kimhs02041@hotmail.com
원고접수: 2015년 8월 5일, 원고심사: 2015년 8월 28일
원고채택: 2015년 9월 23일

Copyright © 2016 b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평균 15명 이내였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5,000명을 상회한다. 이들의 연령대는 20~40대가 북한이탈주민의 73% 이상이며,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0%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4).

북한이탈여성은 탈북과정에서 남성보다 심한 고통을 겪으며(Park & Kang, 2011b). 인권을 제한하는 체포와 구금에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며, 신체적 폭력인 고문과 총격, 구타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된다. 탈북과정 동안 추위, 기아의 고통은 물론이고, 여성이기에 제 3국 남성과의 원치 않는 결혼과 출산, 유산, 성폭력, 인신매매의 폭력에 노출된다(Jeon et al., 2005). 이와 같이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Shin & Lee, 2013).

공개총살 목격과 같은 심각한 외상경험을 북한이탈주민의 80% 이상이 가지고 있으며, 타인이 굶어 죽거나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의 외상사건을 70% 이상이 경험했다고 보고된다(Jeon et al., 2005; Hong et al., 2005).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은 남성에 비해 높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ong et al., 2005). 이와 같이 북한이탈여성은 정신적 건강문제를 남성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한다(Jeon et al., 2005; Kim et al., 2011). 정신적 건강문제로는 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적대감(hostility), 신체화(somatization)(Park & Kang, 2011a),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Kim et al., 2011) 등이 있는데 모두 여성에게서 그 정도가 더 높게 보고되고 있다(Jeon et al., 2005; Kim et al., 2011).

북한이탈여성의 신체적 건강문제는 정신적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북한이탈과정 중 베트남, 몽골, 중국, 캄보디아와 같은 제 3국에 체류하는 동안 난민으로서 발각 및 체포와 관련된 불안(Min, 2008), 가족과의 이별이나 안위의 문제로 인한 외상,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Hong et al., 2006).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 겪게 되는 신체

적 문제는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증, 소화기계 증상, 성적 증상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졸도, 구역질, 구토, 복통, 소화장애, 변비, 호흡곤란, 빈맥, 성기능 장애, 월경불순 및 생리통이다(Lee et al., 2011). 북한이탈여성은 심각한 폭력경험을 겪는 만큼 탈북과정의 정신적 고통이 월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여성의 월경문제는 무월경, 월경기간의 감소, 월경량의 감소가 보고되었다(Seo et al., 2004; Yuk et al., 2004). 또한 폭력경험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Jeon et al., 2005; Hong et al., 2005; Hong et al., 2006).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하나의원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62,951건 중 내과, 정신과, 치과, 산부인과의 순으로 많은 진료가 이루어 졌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4). 이와 같이 정신과, 산부인과 건강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신건강과 생식건강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심한 정신적 위협은 시상하부의 성선자극호르몬 분비를 변화시키고, 배란과 월경주기의 불규칙을 유발한다(Nappi & Facchinetti, 2003). 북한이탈여성의 월경주기는 불규칙한 비율이 40~55%로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Seo et al., 2004; Yuk et al., 2004). 하지만 불규칙한 월경주기에 따라 외상경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로에 따른 월경문제의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다(Yuk et al., 2004). 이에 월경규칙성에 따라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폭력과 관련된 인권문제는 물론 월경과 관련된 생식건강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과 월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식건강 향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의 월경규칙성에 따

른 외상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과 월경 규칙성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외상경험을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월경규칙성에 따른 외상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월경규칙성에 따른 외상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전국 5개의 하나센터에서 교육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며 설문지의 내용과 연구전반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배포한 설문지 151부 중 132부를 회수하여 응답율은 87.4%였다. 총 132부 중 월경에 영향을 미치는 갑상선 과거력을 가진 대상자 1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상자는 131명이었다.

표본 크기는 G*Power 3.0.10 program을 이용하여(Faul et al., 2007), 유의수준 α .05, power .80, effect size medium, t-test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집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는 128명이었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초경 연령부터 폐경 전인 가임기 대상자
- 2)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대상자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생식기계 질병의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

- 2) 현재 약물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
- 3) 항암요법을 받는 적이 있는 대상자
- 4) 피임약을 포함한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

3. 연구 도구

1) 월경규칙성(Menstrual regularity)

월경규칙성은 월경규칙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 보고식 설문하도록 하였으며, 규칙성과 불규칙성으로 이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2) 외상경험(Traumatic experiences)

외상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 척도(The traumatic experiences scale for North Korean defectors)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도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Kang,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를 Jeon 등(2005)이 타당화한 도구(Jeon et al., 2005)로 사용하였다. 도구는 북한 내 외상경험 13문항과 탈북 중 외상경험 15문항의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자가 보고식으로 구체적 외상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0점', '예=1점'의 이항반응식 구조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의 범위는 0~28점이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는 북한 내 외상경험 .74, 탈북 중 외상경험 .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4와 .72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6월 1일~2012년 12월 30까지로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M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13-005). 자료수집 전 전국의 5개의 하나센터 해당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연구보조원인 대학

원생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교육을 수행 한 후 탈북여성에게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장소는 하나센터 상담실이었으며, 연구보조원은 탈북여성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조사 방법, 소요시간,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조사원의 신분과 자격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이 모든 과정동안 대상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가 철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력저하 및 피로 등으로 설문지 내용을 혼자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설문지를 읽어주고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 소요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설문작성 후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금전적 사례가 있었다.

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과 월경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외상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다.
- 4) 대상자의 월경규칙성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인 경우가 42.0%로 가장 많았다. 북한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10~14년이 82.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에 온지 1~3년인 대상자가 70.2%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무직이 41.2%, 학생이 24.4%의 순으로 많았고, 월수입은 57.3%가 전혀 없었고, 100만원 미만의 대상

자는 22.1%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35.9%, 기독교 32.1%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99.2%에서 비흡연자이며 23.7%가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155.9 (± 4.3) cm이었으며, 체중은 51.8 (± 6.6) kg이었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21.3 (± 2.7)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과 월경규칙성

대상자의 평균 초경연령은 16.5 (± 2.0)세였으며, 임신력은 2.4 (± 1.4)회, 출산력은 1.2 (± 0.4)회였다. 평균 첫 임신 나이는 24.8 (± 3.4)세였으며, 자연 유산력과 인공 유산력은 각각 1.2 (± 0.7)회와 1.5 (± 1.0)회였다.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는 35.1%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외상경험

대상자의 북한 내 외상경험은 다음과 같다(Table 3). 공개처형을 목격한 경우는 63.4%, 식량부족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경우는 42.7%, 가족, 친척, 이웃이 굶어 죽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는 49.6%, 고문당한 경우는 13%, 고문을 목격한 경우는 14.5%, 심하게 맞은 경우는 22.1%, 심하게 맞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35.9%, 홍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공포를 겪은 경우는 24.4%,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는 20.6%, 교화소나 감옥에 들어간 경우는 12.2%, 차사고 등으로 심한 손상을 겪은 경우는 12.2%, 성학대나 강간을 당한 경우는 6.9%,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는 27.5%였다.

대상자의 탈북과정 중 외상경험은 북한으로 강제 복송된 경우가 18.3%, 식량과 물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가 27.4%, 중국공안에 체포된 경우가 18.3%, 국경수비대나 비밀경찰의 감시로 불안했던 경우가 26.0%, 같이 탈출한 사람이 체포된 경우가 11.5%, 같이 탈출한 사람이 죽은 경우가 6.1%, 충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가 6.1%, 심하게 맞은 경우가 12.2%, 심하게 맞는 것을 목격한 경우가 19.1%, 홍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1)

Variables	Categories	n (%)	M (SD)	Range
Age (yr)	19~29	38 (29.0)	34.6 (8.5)	19~55
	30~39	48 (36.6)		
	40~49	45 (34.4)		
Marital status	Married	44 (33.6)		
	Unmarried	55 (42.0)		
	Divorced	16 (12.2)		
	Widowed	10 (7.6)		
	No response	6 (4.6)		
Length of education in North Korea (yr)	5~9	11 (8.4)	11.8 (1.7)	5~16
	10~14	108 (82.4)		
	15~19	8 (6.1)		
	No response	4 (3.1)		
Length of stay in South Korea (yr)	<1	14 (10.7)	2.4 (2.1)	0~11
	1~3	92 (70.2)		
	4~9	23 (17.6)		
	≥10	2 (1.5)		
Occupation	None	54 (41.2)		
	Student	32 (24.4)		
	Office job	13 (9.9)		
	Service job	10 (7.6)		
	No response	22 (16.7)		
Income (10,000won)	None	75 (57.3)		
	<100	29 (22.1)		
	100~199	22 (16.8)		
	200~400	1 (0.8)		
	No response	4 (3.0)		
Religion	None	47 (35.9)		
	Protestant	42 (32.1)		
	Catholic	2 (1.5)		
	Buddhist	4 (3.1)		
	No response	36 (27.4)		
Smoking	No	130 (99.2)		
	Yes	1 (0.8)		
Drinking	No	100 (76.3)		
	Yes	31 (23.7)		
Height (cm)			155.9 (4.3)	145~165
Weight (kg)			51.8 (6.6)	36~77
Body Mass Index (kg/m ²)	Low weight (<18.5)	8 (6.1)	21.3 (2.7)	17.0~29.3
	Normal (18.5~22.9)	62 (47.3)		
	Overweight (23~24.9)	12 (9.2)		
	Obese 1 (25~29.9)	7 (5.3)		
	No response	42 (33.0)		

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공포를 겪은 경우는 10.7%, 추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는 13.0%, 차사고

등으로 심한 손상을 겪은 경우는 8.4%, 대사관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충격을 경험한 경우가 3.1%, 믿고 있던

Table 2. Obstetric Characteristics and Menstrual Regularity of the Subjects

(N=131)

Variables	Categories	n (%)	Range
Menarche (yr)		16.5 (2.0)	12~24
Gravida		2.4 (1.4)	1~8
Paraity		1.2 (0.4)	1~2
First pregnancy (yr)		24.8 (3.4)	17~37
Spontaneous abortion		1.2 (0.7)	0~3
Artificial abortion		1.5 (1.0)	0~7
Menstrual regularity	Regular	85 (64.9)	
	Irregular	46 (35.1)	

Table 3. Traumatic Event Experienced by the Subjects

(N=131)

Variables	Categories	Subcategories	n (%)
Traumatic event while living in North Korea	Eyewitness to a public execution	No	48 (36.6)
		Yes	83 (63.4)
	Life at risk due to shortage of food	No	75 (57.3)
		Yes	56 (42.7)
	Eyewitness to a family member, relative, or close neighbor dying of starvation or to a death from starvation	No	66 (50.4)
		Yes	65 (49.6)
	Torture	No	114 (87.0)
		Yes	17 (13.0)
	Eyewitness to a torture	No	112 (85.5)
		Yes	19 (14.5)
	Severe beating	No	102 (77.9)
		Yes	29 (22.1)
	Eyewitness to a severe beating	No	84 (64.1)
		Yes	47 (35.9)
	Fear of natural disaster, such as flood or mountain fire	No	99 (75.6)
		Yes	32 (24.4)
	Experience of life-threatening coldness	No	104 (79.4)
		Yes	27 (20.6)
	Entry into a correctional center or prison	No	115 (87.8)
		Yes	16 (12.2)
	Severe injury due to a car accident or at work	No	115 (87.8)
		Yes	16 (12.2)
Traumatic event during defection	Sexual abuse or rape	No	122 (93.1)
		Yes	9 (6.9)
	Forced human traffic	No	95 (72.5)
		Yes	36 (27.5)
	Forced return to North Korea	No	107 (81.7)
		Yes	24 (18.3)
	Life at risk due to insufficient supply of food and water	No	95 (72.6)
		Yes	36 (27.4)
	Capture by a Chinese guard	No	107 (81.7)
		Yes	24 (18.3)

Table 3. Traumatic Event Experienced by the Subjects (Continue)

(N=131)

Variables	Categories	Subcategories	n (%)
Traumatic event during defection	Capture of a co-escapee	No	116 (88.5)
		Yes	15 (11.5)
	Death of a co-escapee	No	123 (93.9)
		Yes	8 (6.1)
	Life at risk due to being shot at	No	123 (93.9)
		Yes	8 (6.1)
	Severe beating	No	115 (87.8)
		Yes	16 (12.2)
	Eyewitness to a severe beating	No	106 (80.9)
		Yes	25 (19.1)
	Fear of natural disaster, such as flood or mountain fire	No	117 (89.3)
		Yes	14 (10.7)
	Experience of life-threatening coldness	No	114 (87.0)
		Yes	17 (13.0)
	Severe injury due to a car accident or at work	No	120 (91.6)
		Yes	11 (8.4)
	Shock at refusal by the South Korean embassy or consulate to accept request for asylum	No	127 (96.9)
		Yes	4 (3.1)
	Unexpected betrayal by a trusted person	No	100 (76.3)
		Yes	31 (23.7)
	Sexual abuse or rape	No	124 (94.7)
		Yes	7 (5.3)
	Forced human traffic	No	101 (77.1)
		Yes	30 (22.9)

사람이 배신한 경우가 23.7%, 성학대나 강간을 당한 경우는 5.3%,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는 22.9%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및 월경 규칙성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월경이 불규칙한 대상자의 북한 내 외상경험 점수는 4.1점(± 2.7)으로 규칙적인 대상자의 3.0 (± 4.0)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 = -2.46$, $p = .015$). 월경이 불규칙한 대상자의 탈북 중 외상경험 점수는 2.5 점(± 2.6)으로 규칙적인 대상자의 2.1 (± 2.4)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0.94$, $p = .346$). 월경이 불규칙한 대상자의 외상경험의 점수는 7.6점(± 4.7)으로 규칙적인 대상자의 5.2 (± 4.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 = -1.78$, $p = .038$).

두 군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구분간의 차이는 없었고, 산과적 특성 중 초경이 규칙한 대상자는 평균나이가 16.1세, 불규칙한 월경대상자는 17.2세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83$, $p = .005$) (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외상경험과 월경 규칙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월경 규칙성에 따라 외상경험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탐색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로 불규칙한 월경주기를 가진 북한이탈 여성의 외상경험은 규칙적인 월경주기를 가진 여성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의 고통스러운 외상경험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월경 규칙성에 따라 외상경험 차이가 있음을 밝혀 생식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

Table 4. Difference of General, Obstetric Characteristics and Traumatic Experiences according to Menstrual Regularity of the Subjects

(N=131)

Variables	Regular menstruation	Irregular menstruation	t	p
	M (SD)	M (SD)		
Traumatic event				
Traumatic event while living in North Korea	3.0 (4.0)	4.1 (2.7)	-2.46	.015
Traumatic event during defection	2.1 (2.4)	2.5 (2.6)	-0.94	.346
Total traumatic event	5.2 (4.4)	7.6 (4.7)	-1.78	.038
Age	34.1 (8.2)	34.6 (8.6)	-0.25	.799
Length of education in North Korea (yr)	11.6 (1.9)	11.1 (1.2)	-0.32	.753
Length of stay in South Korea (yr)	2.3 (1.9)	2.4 (2.0)	-0.04	.970
Body Mass Index (kg/m ²)	21.4 (2.4)	21.1 (2.3)	0.66	.511
Menarche (yr)	16.1 (1.9)	17.2 (2.2)	-2.83	.005
Gravida	2.3 (1.2)	2.6 (1.7)	-0.95	.343
Paraity	1.3 (0.4)	1.3 (0.4)	-0.49	.620
First pregnancy (yr)	24.8 (3.4)	25.1 (3.4)	1.47	.357
Spontaneous abortion	1.4 (0.8)	1.0 (0.6)	1.48	.149
Artificial abortion	1.5 (0.7)	1.8 (1.5)	-0.98	.331

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특성이 북한이탈여성의 모집단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현재 한국 내 북한이탈여성은 18,776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30~40대의 가임기 여성이다 (Ministry of Unification, 2014). 본 연구대상자 또한 3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혼인 대상자가 가장 많아 가임연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10~14년이 가장 많아 북한 의무교육 학제인 중학교 졸업이상이 대부분이었고, 모집단의 70% 이상이 북한 학제의 중학교 수준 이상인 것과 유사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2014). 한국에 입국한 지 1~3년이 되는 대상자가 70.2%를 차지하고 있어 2010년대에 입국한 대상자가 대부분이었다. 직업과 월수입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었다. 즉, 무직과 학생이 65.6%를 차지하였고, 월수입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7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 여성은 일반적 배경만 보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가임기에 부하되는 돌봄 노동의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종교는 무교와 기독교가 각각 35.9%와 32.1%

로 가장 많았는데, 문화적 소외를 경험하는 북한이탈 여성이 외로움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Park & Kang, 2011b), 종교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강행위 중 흡연과 음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흡연자이며 (99.2%), 음주는 여성의 비율이 23.7%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를 유추할 수는 없다. 더불어 영양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신체계수는 북한이탈 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평균신장 155.9 cm (± 4.3)과 체중 51.8 kg (± 6.6)은 한국여성의 평균인 160.6 cm와 56.6 kg에 비해 적었다(Choi et al., 2010). 대상자의 체질량지수는 평균이 21.3 (± 2.7)로 한국여성의 21.9와 유사하였으나(Choi et al., 2010), 낮은 체질량지수의 원인이 영양자원의 부족인지 체중조절의 결과인지 구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종합해 보면, 20대 초반의 첫 임신과 많은 유산력으로 보아 임신소모가 크고, 낮은 신체계수와 늦은 초경연령으로 보아 불량한 영양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과적 특성을 통하여 대상자의 생식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평균 임신력과 출산력이 각각 2.4

회(± 1.4)와 1.2회(± 0.4)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의 평균인 2.1회, 1.2회와 유사하였다(Kim et al., 2012).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자연 유산력과 인공 유산력은 각각 1.2회(± 0.7)와 1.5회(± 1.0)로, 한국여성의 평균인 0.2회와 0.2회보다(Kim et al., 2012) 5~7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는 유산으로 인한 임신소모가 한국여성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가 처음 임신한 연령은 평균 24.8세(± 3.4)였으며, 한국여성의 평균인 29.8세에 비해 빠르지만, 평균 초경연령은 16.5세(± 2.0)로, 11~13세에 초경을 시작하는 경우가 80% 이상인 한국 여성에 비해 늦었다(Kim et al., 2012). 북한이탈여성의 늦은 초경연령은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으며, 그 원인을 불량한 영양 상태에서 찾고 있다(Choi et al., 2010; Kim et al., 2013; Shin & Lee, 2013).

본 연구대상자의 월경주기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5.1%였는데, Yuk 등(2004)은 불규칙 월경이 43.3%, Seo 등(2004)은 54.4%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한국 성인여성의 3.03%에서 불규칙 월경을 보고한 것에(Kim et al., 2012) 비하면, 북한이탈 여성의 월경 불규칙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 여성의 월경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월경문제의 원인을 찾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월경문제가 정신적 외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에 주목하여 외상경험을 조사하였다. 극심한 정신적 외상은 신체화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남긴다(Lee et al., 2011). 신체화는 명확한 의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1). 하지만 최근 신체화를 일으키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뇌하수체의 호르몬과 뉴로펩타이드, 신경전달물질, 면역요소가 성선자극호르몬의 방출을 조절하여 황체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로 인한 무월경과 규칙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쟁, 공포상황, 고립, 심리적 문제도 심원성 무월경(psychogenic amenorrhea)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Nappi & Facchinetti, 2013). 또한 불안은 혈중 브라디키닌(Bradykinin)을 상승시켜 신체화를 초래할 수 있다(Fukuda, 2003). 브라디키닌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촉진하여, 월경통, 불규칙한 월경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Gilly, 2001).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의 월경규칙성 문제는 독립적인 신체증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겪은 사회문화적 경험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쟁, 재난, 사고, 산업재해, 폭행, 강도, 강간 등의 심각한 폭력경험은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Eun et al., 20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충격적 인권침해는 북한이탈 여성의 심리적 외상과 이에 따른 월경문제를 추론케 한다. 본 연구대상자는 생명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충격, 기아, 추위, 사고, 고문은 물론이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건들의 목격과 체포, 그리고 가까운 이의 배신, 대사관의 입국거절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기는 외상경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북한이탈 여성은 여성이기에 자녀와의 이별, 예상치 못한 성폭력, 매매혼과 인신매매를 경험했을 때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다양한 육체적 질병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상경험은 여성에게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힘을 파편처럼 조각나게 한다(Kim, 2010).

본 연구결과는 월경 규칙성에 따라 외상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월경인 대상자는 규칙월경인 대상자에 비해 외상경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외상경험과 월경문제의 인과성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여성의 신경생리학적 증상(neurobiologic symptom)의 측면으로(Lee et al., 2011) 월경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신체적 건강문제는 영양문제(Choi et al., 2010), 자율신경계 문제(Song et al., 2011), 월경문제(Seo et al., 2004; Yuk et al., 2004) 정도로 많이 밝혀져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신체화 증상, 특히 월경문제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Lee et al., 2010). 북한이탈 여성은 건강을 돌볼 시간, 경제적 자원이 없으므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Choe et al., 2012). 북한이탈 여성은 외상

경험을 반추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같은 북한 출신을 만나기 꺼려한다. 오히려 남한사람들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외상 후 충격의 정도가 적다고 하였다(Kim, 2010). 그러므로 북한이탈 여성의 건강문제를 돕는데 충분하고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건강전문인들의 이해와 노력이 특별히 촉구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생식건강은 다음 세대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대상자의 월경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생식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전국 하나센터의 5군데 탈북여성을 위한 지역적응교육센터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를 분석하였기에 전체 북한이탈 여성에게 확대 적용,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31명의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월경 규칙성 문제와 북한 내와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경험의 실태를 조사하고, 월경규칙성에 따른 외상경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불규칙 월경은 35.1%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상경험은 북한 내와 탈북과정에서 각각 성학대가 6.9%와 5.3%, 인신 매매가 27.5%와 22.9%, 식량과 물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험이 42.7%와 27.4% 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상태였다. 대상자의 월경 규칙성에 따라 외상경험의 차이를 보였다. 즉 불규칙월경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외상경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북한이탈여성의 생식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심각한 외상경험을 세심히 고려하며, 월경규칙성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생식건강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월경 규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Choe MA, Lee M, Choi JA, Shin G. Health knowledge,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12;42(5):622-631
- Choi SK, Park SM, Joung H. Still life with less: North Korean young adult defectors in South Korea show continued poor nutrition and physique.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2010;4(2):136-141
- Eun HJ, Kwon TW, Lee SM, Kim TH, Choi MR, Cho SJ.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5;44(3):303-310
-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 2007;39:175-191
- Fukuda K. Somatization disorder and bradykini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2003;57:609
- Gilly A. *Woman's sexual health*. 2nd ed. London: Harcourt; 2001
- Hong CY, Jeon WT, Lee CH, Kim DK, Han M, Min SK.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5;44(6):714-720
- Hong CY, Yoo JJ, Cho YA, Eom J, Ku HJ, Seo SW, et al. A 3-year follow-up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6;45(1):49-56
- Jeon WT, Hong CH, Lee CH, Kim DK, Han M, Min SK. Cor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05;18:147-154
- Kang SR. Development of trauma scale for North Korean refugee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0
- Kim HH, Lee YJ, Kim HK, Kim JE, Kim SJ, Bae SM, et al.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sychiatric symptoms in North Korean defectors. *Psychiatry*

- Investigation 2011;8(3):179-185
- Kim HK. A study on the recovery predictive factors for Korean refugees with tortur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0; 41(3):81-106
- Kim SK, Kim YK, Kim HR, Park JS, Son CG, Choi YJ, et al. The 2012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 Welfare in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 Kim YI, Lee EH, Jeon GE, Choi SJ. A study on coping styles for dysmenorrhea and affecting fact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13;24(3):264-272
- Lee GJ, Won JS, Im SB, Kim SA, Kim SJ, Lee S, et al.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6th ed. Paju: Soomoomsa; 2011
- Lee KH, Lee YS, Ko MS, Kim HJ, Park NJ, Park YJ, et al. 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2nd ed. Seoul: Hyunmoonsa; 2010
- Ministry of Unification. Policy of North Korea Defectors [Internet].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2014 [Cited 2014 August 21]. Available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 Min SK. Divided countries, divided mind 1: Psycho-social issues in adaptation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Psychiatry Investigation 2008; 5:1-13
- Nappi RE, Facchinetti F. Psychoneuroendocrine correlates of secondary amenorrhea. Archives Women's Mental Health. 2003;6:83-89
- Park JR, Kang DW. A study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rends, controversial issues, and tasks.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011a;15(2):1-24
- Park JR, Kang DW. A study o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011b;15(2):40-63
- Song BA, Yoo SY, Kang HY, Byeon SH, Shin SH, Hwang EJ, et 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epression, and heart-rate variability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rauma in Psychiatry 2011;8(4):297-304
- Seo JY, Yuk SS, Kim YS, Lim EM. A study on the menarche and the menstrual pattern of the North Korean women.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4;17(4):186-195
- Shin G, Lee SJ. Mental health and PTSD in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013;00:1-15
- Yuk SS, Kim YS, Lim EM. Study on the variable factors connected with stress affecting menstrual patterns of th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4;17(4):174-185